

“지적 사치 누릴 것” ...말랑말랑한 책 예능의 탄생

tvN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전현무·설민석 출연 읽고 싶어 구입했지만 완독하지 못한 스테디셀러 알기쉽게 풀어줘

새로운 결의 책 소개 프로그램 ‘책 읽어드립니다’가 시청자들을 찾는다.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스탠드호텔 서울에서는 tvN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연출을 맡은 정민석 PD와 설민석, 전현무, 문기영이 참석해 취재진과 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는 읽고 싶어 구입했지만, 살기 바빠서, 내용이 어려워, 혹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완독하지 못한 스테디셀러 책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 PD는 “어쩌다 어른’을 4년 동안 진행하면서 책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걸 설민석 선생님의 재미난 화술과 전달력으로 쉽게 전

달하면 어떨까 싶었다. 그렇게 이 프로그램이 탄생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책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KBS 1TV 교양 ‘TV, 책을 말하다’, MBN 예능 ‘책이웃 - 책장을 보고 싶어’ 등 다양한 결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책 읽어드립니다’만의 차별점이 있을까.

정 PD는 “이야기꾼 설민석이 책을 읽어주는 것에 방점을 뒀다. 책은 저자의 생각이 텍스트로 녹아들어 있는 거다. 정답이 있다면 저자의 생각일 거다. 하지만 이런 정답의 시대가 아닌 견해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나눠보고 나의 답을 찾아 가면 어떨까 한다. 한 회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또한 설민석은 “본질에 충실할 때 시청자들은 반응한다. 우리 프로그램은 ‘선을 넘는 녀석들’보다는 깊이 있게, ‘알쓸신잡’보다는 말랑말랑하게 가면 어떨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설민석은 출연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역사하는 분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주는 게 싱크로율이 있을까” 하시는데,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로지 쉽고 재밌게 책을 읽어주는 역할에 머문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말해줄 것이다. 전현무와 이적은 교양으로만 머물 수 있는 방송에 예능을 첨가한다. 문기영은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 감동”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전현무는 책을 읽지 않는 특이한 역할을 한다. 정 PD는 전현무에게 일부러 책을 읽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우리 프로그램은 책을 읽지 않아도 볼 수 있다. 그 눈높이는 전현무가 맞출 거다. 우리가 일부러 책을 읽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했다. 이에 전현무는 “책 읽지 않아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시청자들을 대변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절대 책을 읽지 않을 것”이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전현무와 설민석은 이 프로그램에서도 찰떡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현무는 “원래 설민석의 엄청난 팬이었다. ‘선을 넘는 녀석들’로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전생애 사귀었던 게 아닌가’라고 애기한 적이 있다. 난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인

간적으로도 호흡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녀석들’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좋은 제안이 와서 ‘책 읽어드립니다’에 출연하게 됐다. 김성주에게 안정환이 있다면, 나에겐 설민석이 있다”라고 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 말을 들은 설민석은 “전현무와 스캔들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거 말근 걱정이 없다”라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설민석은 “많은 시청자들이 지적 사치를 누리기 위해 채널을 고정하게 될 거다. 딱딱한 분들도 좋지만 인문학 소외자들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대중화를 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으며, 전현무는 “책을 안 보는 시대에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이 책은 아는구나’ 하는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을 당부했다.

한편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는 24일 오후 8시10분 처음 방송된다.

‘아스달연대기’ 파트3 시청자 이탈없이 7%대 종영 ‘유종의 미’



tvN ‘아스달연대기’가 7%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연대기’ (극본 김영현, 박상연/연출 김원석)의 파트3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이 지난 22일 종영했다. 이날 방송분은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합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 평균 7.4%, 최고 8.1% 기

록, 종편을 포함 케이블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타깃 시청률 평균 5.4%, 최고 5.9% 기록, 지상파 포함 전 채널 1위에 오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유료플랫폼/전국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아스달 연대기’는 지난 6월1일 1회 6.729%로 출발해 5~7%대를 오갔다. 파트 1, 2 종영 후 두 달의

휴방 기간을 거쳤으나 시청자 이탈 없이 파트3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종화에서는 타곤(장동건 분)과 은섬(송중기 분)이 각각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며, 각기 다른 영웅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타곤은 태알하(김옥빈 분)가 청동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권력을 나누자고 하는 데도,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기뻐하며 태알하와의 혼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타곤은 은밀히 사야(송중기 분)에게 청동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지시했고, 태알하는 타곤 몰래 아사사칸(손숙 분)을 대면, 환산의 장로들과 만나며 계락을 꾸었다.

탄야(김지원 분)가 무언가를 감춘다고 의심했던 사야는 무백(박해준 분)에게 돌담불에 있던 은섬이 자신의 쌍둥이며, 탄야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탄야는 ‘아스’ 땅을 아우르는 하나의 나라, 아스달을 선포하며, 연맹인들에게 앞으로 불릴 ‘백성’이란 이름을 건넸고, 타곤은 첫 번째 왕명으로 아스달에 대항하는 아고족과 부족들을 정벌하자고 명령, 불만과 공포, 분노를 잠재울 거대한 전쟁을 예고했다.

반면 은섬은 구해낸 노예들 중 아고족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나이 신기의 재물을 알리라며 조건을 달았고 묘씨족 족장은 아고족 씨족장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태씨, 벽씨 족장이 믿지 않자, 은섬은 “아고족 3만의 열망을 받아 안지 못하면 난 죽어”라는 일생(김성철 분)의 말에서 묘수를 찾아, 돌아가는 태씨 족장에게 자신이 이나이 신기면 태씨 족장은 죽을 거라고 예언했다. 결국 아고족 희망인 이나이신기가 재림하길 원했던 태씨 족은 열망을 저버린 태씨 족장을 죽여 버렸고, 은섬에게 자신들을 형제로 받아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핑클, 14년만 신곡 ‘남아있는 노래처럼’ 3개 음원차트 1위

1세대 걸그룹 핑클(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이 14년 만의 신곡으로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발매된 핑클의 새 싱글 ‘남아있는 노래처럼’은 23일 오전 8시 기준 음원사이트 벅스, 네이버, 소리바다 등 실시간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멜론 23위, 엠넷 뮤직 2위, 올레뮤직 8위, 지니뮤직 8위 등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 실시간차트에도 상위권에 안착하며 여전한 화력을 과시했다.

‘남아있는 노래처럼’은 프로듀서 김현철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멜로디와 핑클의 보컬 조합이 어우러지는 곡으로,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자신들의 노래에 대한 소중함을 담아냈고 동시에 기다려준 팬들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





달라는 메시지를 녹여내 리스너들의 공감을 사로잡았다.

핑클은 지난 2005년 디지털 앨범 ‘포에버 핑클’ (Forever Fin.K.L.) 이후 약 14년 만에 자신들을 기다린 팬들을 위해 ‘남아있는 노래처럼’을 발매, 세월의 진신을 담아낸 노래로 팬들은 물론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광주광역시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